

# 코로나19 이후 북-중 식료품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시사점

김욱

건국대학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교수



## 1. 문제의 제기

코로나19는 북중 경제관계를 일시적으로 끊어 놓았지만, 그 이후의 회복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국경 통제, 공급망 재설계, 접경 물류 재가동, 북한 내부의 지역산업화 정책이 겹치면서 북중 식료품 산업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북 무역이 2025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에 거의 복귀했고, 2026년 초에도 양방향 교역이 추가로 확대된 점은 이러한 구조 변화

를 뒷받침한다<sup>1)</sup>. 2025년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되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27억 9천만 달러에 거의 근접했다 이는 국경 봉쇄 시기의 급락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교역 구조 자체가 다시 짜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 초 기준 북중 교역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Reuters에 따르면 2026년 1~2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1) Reuters, "China's 2025 trade with North Korea rebounds to pre-COVID levels," 2026년 1월 20일.

19% 증가했고, 양방향 교역은 22% 늘었다<sup>2)</sup>.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단순 복귀가 아니라, 교역 재개 이후 관계 완화와 물류 정상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특히 식료품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식료품은 제재 환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민생 명분을 앞세울 수 있으며, 현지 가공과 재유통을 결합하기 쉬운 품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 식료품 산업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 교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한적 개방과 내재적 산업화를 결합하고 있는지를 읽는 작업이다. 이와 동시에 접경 무역의 품목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식료품, 생활소비재, 포장 관련 품목, 일부 가공품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고, 이는 북한 내부 생산기지와 중국 접경 시장이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회복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KDI는 북한 경제가 자본 부족, 국가의 유통 통제, 대외 불확실성, 환율 변동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sup>3)</sup>. 즉, 교역 회복이 곧바로 시장화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은 통제를 유지한 채 선택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회복의 내용이다. 과거 북중 무역이 석탄, 광물, 저가 소비재의 단순 교환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식품, 생활소비재, 가공품, 포장재, 일부 기능성 소비재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무역의 중심축이 자원 수출형에서 민생·경공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변화는 북중 접경의 일부 철도·육로·항만 물류 정상화화

도 연결된다. 특히 훈춘-나진 선봉 간 국경 통제의 완화 이후 물류는 대규모 일괄 개방이 아니라, 관리형·선별형·단계형 방식으로 복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식료품이 가장 먼저 살아나는 품목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 2. 북한 내부 정책과 식료품 산업의 결합

북한의 20×10 지역개발정책은 이번 변화의 핵심 배경이다. 2024년 발표된 이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화된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역 격차 해소와 생활수준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운다<sup>4)</sup>, 38 North는 이 정책이 북한의 지역산업 분산과 현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고, KDI도 북한이 2025년에 지역개발과 생산 확대를 병행할 것이라 전망한바 있다<sup>5)</sup>. 이 정책이 식료품 산업과 만나는 지점은 분명하다. 북한이 지역별 식품 공장, 음료공장, 가공식품 설비를 늘릴수록, 식료품 산업은 단순한 소비재 생산을 넘어 지방경제를 떠받치는 기초 산업이 된다. 다시 말해 식료품은 당장의 민생 안정 수단이면서 동시에 지방공업 확산의 핵심 매개다.

식료품 산업의 첫 번째 특징은 민생성과 정치성의 결합이다. 식품은 생존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안정적이며, 정치적으로도 “인도적” 명분을 붙이기 쉽다. 북한이 식료품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식량·소비재 공급 안정, 외부적으로는 제재 회피 가능성과 외화 창출 가능성 때문이다<sup>6)</sup>. 두 번째 특징은 현지 가공형 산업화다. 북한은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한 뒤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구조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이는 식품산업이 노동집약적이고, 비교적 소규모 설비로도 가동이 가능하며, 접경지역의

2) Reuters,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rises 22% in January and February as ties improve,” 2026년 3월 19일

3) KDI,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January 2025.

4) 38 North, “Kim Jong Un’s 20x10 Project Achieves Year One Successes,” 2025년 2월 27일

5) KDI,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January 2025.

6) 38 North, “The 20x10 Initiative Brings Factories at the Cost of Agricultural Land,” 2025년 5월 4일.

도표 1. 북한 식품산업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김정일 시대 (수입 대체)	김정은 시대 (수출 및 현대화)
핵심 목표	부족한 물자 공급 및 외화 절약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 및 외화 획득
생산 방식	재래식 공정 및 수동 생산	자동화, 무균화 공정 도입
디자인	단순 정보 기재, 투박한 포장	브랜드 로고, 바코드, 영양성분 강조
품질 인증	내부 기준 적용	ISO 22000 등 국제 표준 지향

자료: 저자 작성

물류와 결합하기 쉽기 때문이다. 세 번째 특징은 브랜딩과 포장 경쟁력의 상승이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유통되는 북한 식품은 과거보다 포장재 품질, 시각 디자인, 성분 표기, 제품 다양성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제품 개선이 아니라, 중국 시장의 소비자 기준에 맞추려는 전략적 적응이다.

예컨대 송도원종합식료공장 같은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한다. 설비 자동화, 위생 관리, 포장 개선, 브랜드화는 북한 식품산업이 전통적 수공업 단계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표준화와 상품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ISO22000 인증의 전략적 활용이다. 즉 패키지에 표기된 ISO22000 마크는 단순한 위생 인증을 넘어, 중국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마케팅 도구로 쓰이고 있다. 둘째, 포장의 현대화이다. 즉 제품들의 칼로리 표기, 세련된 폰트, 그리고 보관이 용이한 지퍼백 포장 등을 보며 조선 식품공업의 디테일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셋째, ISO 22000<sup>7)</sup>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국가 단위가 아닌 개별 기업이 획득하는 민간 인증이다. 최근 북한의 일부 식품 기업들이 자사 제품 포장에

ISO22000 인증 마크를 표기하는 것은, 이들이 대외 무역 과정에서 국제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표준을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철저히 수출을 겨냥한 외화벌이 목적에 국한되어 있으며, 북한 내부 시장 전반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디지털 전환과 무역 플랫폼과 북한의 식료품 산업 변화에 대한 재 인식

디지털 무역 플랫폼 공개자료만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상품 포장, 표시, 유통정보, 접경 판매망을 중국 위챗 등 모바일 및 인터넷 플랫폼수단을 통해 보다 시장 친화적인 B2B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즉, 북한 자체가 디지털화를 거쳐 국제적인 대형 플랫폼의 존재로 보기보다, 중국시장에서 중국의 현지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홍보 및 상업활동을 진행하고, 상품 선별, 브랜드 관리, 유통 최적화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과거보다 상당히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ISO 22000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국제 표준으로, 식품 원재료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1



자료 : 저자

북한은 지금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역별 생산기지를 확산해 내부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경 무역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중 전략은 식료품 산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첫째, 지역 공장 건설은 주민 생활 안정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유용하다. 둘째, 식품·가공품은 제재의 직격탄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외화 유입 가능성을 남긴다. 셋째, 상품화된 식료품은 단순 원자재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북한 내부의 식료품공업화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시사점

코로나 이후 북중 식료품 산업은 단순한 교역 회복이 아니

라, 북한의 지역산업화 정책과 접경 무역 재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구조적 전환의 사례다. 교역 회복, 지역 공장 확산, 식품공장 현대화, 접경 유통 재정비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따라서 북한이 식료품 산업을 통해 제한적 개방과 내재적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북중 식료품 산업은 향후 북한 경제를 해석하는 핵심 지표로도 볼 수 있다. 과거 광물이나 에너지보다 식료품과 경공업의 발전에도 괄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북한의 지역개발정책은 단순한 선전 구호가 아니라 실제 생산기지 분산 정책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정책도 민생차원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셋째, 중국 등 주변국 들로부터 북한의 식료품 산업을 인도주의와 산업협력, 그리고 접경지역 경제의 변화를 읽는 창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 중 러 국가 간의 동북아 지역 무역활성의 조짐도 포착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나선 특구는 북한 내부 생산과 외부 유통을 연결하는 원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측 접경 유통망이 결합하면서, 앞으로 보다 북한 식품산업은 내수용 공급뿐 아니라 수출형 상품화까지 병행되면서 시장 잠재력도 커질 전망이다.

다섯째, 북한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적응과 일부 산업 고도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산업은 진위여부를 떠나서 ISO22000국제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반도 경제협력, 나아가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볼 필요성이 제시된다.

### [참고 문헌]

- Reuters, "China's 2025 trade with North Korea rebounds to pre-COVID levels," 2026년 1월 20일.
- Reuters,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rises 22% in January and February as ties improve," 2026년 3월 19일.
- KDI,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January 2025.
- 38 North, "Kim Jong Un's 20x10 Project Achieves Year One Successes," 2025년 2월 27일.
- KDI,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January 2025.
- 38 North, "The 20x10 Initiative Brings Factories at the Cost of Agricultural Land," 2025년 5월 4일.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